

## 지역 소식통

고창군, 고객 중심 민원서비스 운영

고창군이 여관별급이 증가하면서 근무 시간 내에 군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비쁜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9시까지 연장근무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고창군 여관 별급 현황은 2014년 2270건, 2015년 2696건, 2016년 3210건이며 올해는 7월말 기준 183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지야외여관 별급 서비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민원인은 본인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여권 사진 1매와 수수료를 준비해 군청 민원실 3번 창구에 접수하면 신청 후 4일 이후 여권을 수령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은평구 가족봉사단과 봉투어 활동**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가 지난 19일과 20일 서울은평구 가족봉사단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사와 여행을 동시에 즐기는 봉투어 활동을 전개했다.

봉투어 활동이라 지원봉사와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전라북도와 고창군의 맛집사업으로 고창군 지원봉사센터가 주관해 진행됐다.

주말을 이용해 서울 은평구 가족봉사단은 상하연 동행노인복지센터에서 문화공연과 해리면 월봉마을의 벽화봉사를 진행했다.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김종규 소장은 “지원봉사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행복을 나누는 지원봉사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입암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 간담회**

정읍시 입암면은 21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교육을 갖고 간담회도 가졌다.

이자리는 참여 어르신의 참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수렴하게 위해서 마련됐다.

면은 특히 이날 작업 시 주의 사항과 출퇴근 시 교통사고 예방 요령과 개인위생 수칙 등을 안내하고, 점심으로 삼계탕을 대접하며 그간의 노고를 위로했다.

면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은 타당성 등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겠다”며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2023 세계잼버리 유치

# “글로벌 부안의 발판 마련”

김종규 부안군수, 부안 새만금 유치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서

“종파를 떠나 성직자·사회단체·군민의 승리로 600년 글로벌로 비상하는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에 유치하게 됐다”고 김종규 부안군수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부안군민과 전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 확정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줬다”며 “세계잼버리 연계사업 빌글·추진을 통해 성공적 대회 개최로 글로벌 부안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전을 위한 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군수는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 확정과 관련해 세계잼버리 연계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빌글로써 준비에 나섰다.

부안군은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 확정과 관련해 새만금 내부철도 연장과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국가아랑 지정, 해창식간 세계 청소년 리더육성센터 조성 등 세계잼버리 연계사업 11건을 빌글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빌글된 세계잼버리 연계사업은 새만금 내부철도 연장과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국가아랑 지정, 해창식간 세계 청소년 리더육성센터 조성 등 세계잼버리 연계사업 11건을 빌글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내부철도 연장은 현재 새만금 신항만까지 확정된 내부철도 노선을 세계잼버리 개최지역인 새만금 관광재자용지(새만금홍보관)까지 연장해 새만금 지역을 활황해질 물류 및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국가아랑 지정은 새만금 내부철도 본격화되면서 내측 어선들이 외측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접근성이 좋은 가력선착장의 어선수용능력을 329척 이상 확대함으로써 내측 어선들이 가력어 항으로 이동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빌글된다.

해창식간 세계 청소년 리더육성센터 조성은 2023 세계잼버리 대회장과 인



센터 조성과 평생학습박람회 및 직업체험센터 운영, 2023 세계잼버리 국도 가로숲길 게이트 조성, 부안 새만금 잼버리 씨티 조성 등이다.

새만금 내부철도 연장은 현재 새만금 신항만까지 확정된 내부철도 노선을 세계잼버리 개최지역인 새만금 관광재자용지(새만금홍보관)까지 연장해 새만금 지역을 활황해질 물류 및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국가아랑 지정은 새만금 내부철도 본격화되면서 내측 어선들이 외측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접근성이 좋은 가력선착장의 어선수용능력을 329척 이상 확대함으로써 내측 어선들이 가력어 항으로 이동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빌글된다.

해창식간 세계 청소년 리더육성센터 조성은 2023 세계잼버리 대회장과 인

접한 해창식간 부지를 자연생태적 세계 스키犹特 리더육성센터로 조성해 대회 운영기간 전 세계 청소년들의 교육 및 휴양공간으로 제공하고 이후 청소년 연계 행사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상됐다.

이와 함께 변산 저소천 에코클러스터 조성은 세계잼버리 대회장과 인접한 저소천을 정비함에 있어 자연생태적이며 전 환경 에코클러스터를 조성해 세계 청소년들의 학습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립 청소년 VR 체험 장 조성은 2023 세계잼버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꿈을 가상현실을 통해 미리 체험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부안 새만금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추억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해창식간 세계 청소년 리더육성센터 조성은 2023 세계잼버리 대회장과 인

/부안=이옥수기자



부안중국문화원, 한중수교 25주년 기념

## 중국비물질문화유산 전시회 진행

부안중국문화원은 차이나교육문

화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비물

질문화유산 전시회를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

비밀질문화유산은 중국 국무院에

서 정기적으로 심사 후 비준 받은

공연이나 공예 등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중수교 25주년

을 기념한 전시회를 통해 중국문화

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6월 중국 무

형문화재인 호남성 원문정 선생이

부안군에게 강좌했던 종려잎 공

예품을 포함해 쓰촨성 대나무 수공

예품인 사천자비죽편, 신시성의 산

시평상죽인형 광봉광 시성 전통간

축물장식공예품인 광자우희소, 중

국 고대자기공예인 당삼체 말, 간수

성의 표주박에 세상을 담은 란자우

표주박공예 등이 전시된다.

또 양면의 일체감이 있고 정교하

며 송원시대부터 황제 웃 재료로

사용된 수자우격사, 파란색 유약을

많이 사용한 경태립 금속예에 송나

리에서 시작해 북송할 때 가장 번

영한 인화성의 우후철화, 이아들의

시립을 받고 있는 묘족호루타기, 천

연 웃 재료를 도자기 위에 두껍게

발라 칼로 무늬를 낸 조찰수공보석

합 등 총 18종의 공예품을 감상할

수 있다.

부안중국문화원 관계자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부안중국문화

원을 주축으로 중국문화를 알리고

중국인이 왔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중

국교류문화전화도시로 나아가기 위

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 고품질 과실 생산 “병해충 방제에 철저 기해야”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과수 병해충

발생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

고 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높은 온도와 뜨거운 강우로 탄자병이나 겹무나썩음병 등의 발생이 확산되고 있다. 전연 속도도 빨라 예방치료의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해충이 많이 발생해 과실과 잎 등을 가해함으로써 과실의 상품성 저하도 염려된다.

관련하여 기술센터는 주변 가로수의 잎을 가해하고 있는 미국흰불나방이 농경지로 이동하여 가해할 수 있으므로 농경지 주변까지 방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흰불나방은 외래해충으로 1958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고(미국화물로 유입가능), 1년에 2회 발생하고 있다. 암컷 1마리가 1년동안 뒷면에 600~700개 정도의 알을 산란한다.

도로 주변 가로수인 벚나무와 느릅나무를 가해하고 길가 뽕나무와 느릅나무, 감나무 등의 잎을 가해하여 일 맥만 남긴다.

기술센터는 또 이동성이 강한 해충인 노린재는 일반 농작물 재배포장에서 과수원으로 이동하여 가해하므로 꾸준히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물벌해충인 갈색날개 매미충이나 미국선녀벌레 역시 과실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리므로 철저하게 방제할 것을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 내일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오후 2시부터 20분 간

내 주변 대피소 찾기 시범훈련은 수성동 부영자아파트, 교차로와 내장상 등 학산동·고 교차로, 조신동·호남 중·고 교차로, 연지동·터미널 교차로에서 각 동주민센터 주관으로 실시된다.

특히 당일 오후 2시 공습경보가 5분간 발령되면 시기지 전역에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통제된다. 이때 주민들은 신속하게 인근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자와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군수송 차량이 출동할 때에는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은 우측으로 서행해서 긴급 구조와 화재 진압·복구, 지역방위 등 긴급처치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는 훈련에 앞서 대피소 안내전단과 화생방 대피 요령 안내전단 20만매를 제작해 배포했고, 시·읍·면·동 훈련지도원 100여명에 대한 임무를 고지했다.

훈련에서는 제8098부대 4대대와 정읍 경찰서, 정읍소방서, 정읍교육청,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민방위대 등 주요기관과 사회·단체 임직원 4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생기 시장은 “민·관·군·경이 협력하여 주민과 방문객 등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확립, 유사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전을 기해 달라고”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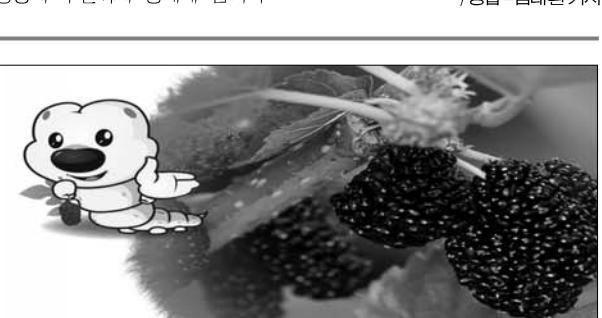


###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봉주와 함께 오디주의 칠면초를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너머로 놓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으묘한 맛에 뒤黠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벌산반도 청정해역의 해송을 맞으며 영글어서 타 지역보다 달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양한 수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칼라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호 | 375ml 2ea/13% |



부안강산봉주  
Premium Oh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

